

나가사키 평화 선언

원자폭탄을 만드는 사람들이여!
잠시 손을 멈추고 눈을 감아보라
1945년 8월 9일!
당신들이 만든 원자폭탄 때문에
수만 명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집 재산이 한순간에 무(無)로 돌아가
평화로운 가정이 파괴되고 말았다
남은 자들은
무에서 일어서야만 한다
피로 물든 삶으로의 고통스러운 길과
내일을 알 수 없는 '원폭증'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가족을 잃은 끝없는 슬픔이
언제까지나 꼬리를 물고 따라다닌다

이 시는 23세에 피폭되어 원폭증과 싸우면서도 원자폭탄의 비참함을 호소한 나가사키의 시인 후쿠다 스마코 씨가 지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잃은 깊은 슬픔, 몸에 남은 흉터, 오랜 세월이 지나고서도 계속해서 세포를 해치며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방사선의 영향, 원폭 피해자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과 생활고. 원폭은 피폭 직후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원폭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폭 피해자들은 '전 세계 누구에게도 다시는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고난 속에서 살아온 자신들의 경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폭 후 79년. 우리 인류는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도주의적 규범을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장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등 핵전력 증강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시작된 전쟁은 끝이 보이질 않고 중동에서는 무력 분쟁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온 중요한 규범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후쿠다 씨는 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원자폭탄을 만드는 사람들이여!
지금이야말로 주저 없이
손에 든 모든 것을 포기할 때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되살아날 수 있다

핵보유국과 핵우산 아래에 있는 나라의 지도자 여러분. 핵무기의 존재 자체가 인류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크게 선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피폭지를 방문해 원폭 피해자의 아픔과 마음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신의 양심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군비 확장과 위협이 아닌, 대화와 외교적 노력으로 평화로운 해결의 길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쟁에서 유일하게 원폭의 피해를 본 나라인 일본의 정부는 진정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 및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명기된 평화 이념을 견지함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 등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군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평균 연령 85세를 넘긴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충실히 제공하고, 아직 피폭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폭 경험자들을 조속히 구제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전 세계 여러분, 우리는 지구라는 하나의 커다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지구 시민'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 격화되어 핵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인명은 물론이고 지구 환경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인류는 존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무기 폐기는 국제사회가 달성하기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전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절대 조건'인 것입니다.

이곳 나가사키에서도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오랜 노력이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청년 리더들의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는 국제회의 '원 영 월드(One Young World)'의 평화 포럼이 처음으로 나가사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 세대가 주역이 되어 연대하고 행동하는 활동의 고리가 각지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희망의 빛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여!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약할지라도 결코 무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구 시민이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합치면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국경과 종교, 인종, 성별, 세대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의 지혜를 나눈다면 우리는 그동안 꿈꿔온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 나가사키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원자폭탄으로 돌아가신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올립니다.

나가사키는 평화를 만드는 힘이 되고자 하는 지구 시민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으며 대화로 해결하는 '평화의 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가 마지막 피폭지가 되길 바라며 핵무기 폐기와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행동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선언합니다.

2024년 8월 9일

나가사키 시장 스즈키 시로(鈴木 史朗)